전남은 'RE100 산단' 최적지…'군공항 문제' 해결도 가능

재생에너지 '솔라시도' 조성 중…발전설비 용량·잠재량 전국 1위
대통령실 광주 민·군 통합 이전 TF 구성 나서…무안에 조성할수도

정부가 조성을 추진하는 RE100 국가산업단지 입지로는 전남으로 대표되는 서남권이 최적지로 꼽힌다.

재생에너지 기반 신도시인 '솔라시도'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등 인프라 구축과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약이 가장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강점을 갖춘 셈이다. 실제 전남은 전력 자급률이 200%에 달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5.19GW)과 잠재량(444.2GW)이 대한민국 1위로 꼽히는 지역이다.

◇기업도시 '솔라시도' 기업 유치 청신호=정부가 RE100 국가산단 조성에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면서 해남 산이면에 조성 중인 기업도시 '솔라시도'의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BS그룹이 개발중인 솔라시도는 2090만㎡ 부지에 AI 데이터 센터와 ESS 등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와 BS그룹은 올해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 하얏트 호텔에서 퍼힐스(FIR HILLS),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해남군과 함께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8년까지 7조원, 2030년까지 8조원 등 모두 15조원이 투입되는 이 클러스터 허브에는 AI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센터, 대규모 ESS 등이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솔라시도는 넓은 부지와 함께 많은 일사량과 빠른 풍속 등 기후조건을 갖췄다. 또 데이터센터 운용에 필요한 산업용수 등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도시 반경 15㎞ 내에 4GW 규모의 육상·수상태양광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솔라시도 인근 영산강 간척지의 태양광 집적화단지(3GW), 서남해안권 해상풍력(7GW) 자원을 활용해 총 10GW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할 수 있어,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장점을 갖췄다. 다만 최근 업무협약 유효기간(8월말)을 얼마 남기지 않고 기업 유치가 지지부진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E100 산단 특별법에 신산업 분야 규제 특례 확대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투자세, 근로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 혜택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교육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고민하기로 한만큼, 솔라시도에서 추진 중인 국제학교 등 설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목포 그린산단·무안 첨단산단도 가시화=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동부권에 견줘 기반사업이 비교적 서부권에 RE100 그린산단(목포)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전남을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 집중육성해 신재생 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안과 함께 공개된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목포에 일명 'RE100 전용 국가 그린산단'을 조성하고, 해상풍력 배후단지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목포 또한 긴 해수면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발전할 수 있고,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솔라시도와 신안 앞바다에서 생산된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관심사인 광주 민·군 공항 통합 이전에 따른 결과물로 무안군에 RE100 산단도 조성이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광주 민·군 통합 이전을 위한 TF 구성에 나선 상태다. 이전의 핵심은 무안군 주민 수용성 확보다. 무안군민이 납득할 만한 선물을 줘야 한다는 데 광주시, 전남도는 물론 지역민들의 여론도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전남도는 앞서 대선을 앞두고 수용성 확보의 일환으로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지역개발 지원을 제안하면서 'RE100 첨단 국가산단 조성'을 제시했다. 무안군에 100만평 규모의 RE100 산단을 조성해 화합물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업 입주 공간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무안 RE100 첨단 국가산단 또한 정부가 고민해볼만한 RE100 국가산단 부지로 조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 첨단산업단지 탄력 = 광주시가 추진중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한민국 AI실리콘밸리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광주시는 AI산업단지와 미래차 산업 단지에 RE100 을 결합하고 있다.

미래차 RE100 스마트 산단의 경우 에너지자립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미래차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광주시도시공사도 첨단 3지구에 에너지 자립산단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6개 기업과 지난달 협약을 체결하고 산단내 18.48㎿급 연료 에너지 발전소(수소발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인근 한식당에서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식당을 찾기 전 SNS에 식사 계획을 알리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당, 양곡법 등 현안 법안 처리 속도 낸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전 정부에서 발목이 잡혔던 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양곡관리법 등 농도 전남의 현안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거부한 법안 42건(중복 포함)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 가운데 '방송 3법'과 '농업 2법'을 우선해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으나,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다시 통과했다.

이른바 '농업 4법' 가운데 재해 관련 2법인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관련 소위를 넘은 상태다. 이들 법안은 이미 상임위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보완 개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상법 개정안 처리 당시 기존 민주당 안에서 여야 간 쟁점으로 보류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의 지역화폐 재정 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두는 지역화폐법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 절차를 남겨둔 상황이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속도전을 위해 '거부권 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사실상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국회 심의를 한 차례 진행했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필요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여기에는 다른 상임위 소관 법률을 심사하는 제2소위의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 기류도 감지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

이재명 대통령 "민생소비쿠폰 내수 소비 촉진해 골목상권 살리고 경제 선순환 구조 만들기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행회복소비쿠폰이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면서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골목 상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식당을 찾아 외식에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또 "여러분의 참여가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저녁 대통령실 직원들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식사한 것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금요일 퇴근길,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며 "인수위도, 인수인계할 직원도 없이 시작한 힘든 환경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고마운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다녀온 분, 청와대 복귀 업무 책임자,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행사를 준비하는 현장 요원, 채용 업무 담당 직원 등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을 직접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 가게 사장님과 직원분들, 식사하러 온 손님들과 마주 앉아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물가에 대한 얘기를 듣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의견을 소중히 경청했다"며 "이번 만남이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삶을 더 세심히 살피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